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교구 9개팀, 청년1부 6개팀, 대학부 11개팀 등 농어촌에 총 21개 전도대 파송

춘천소년원 등 특수지역도, 7월 22일부터 8월 17일까지

교회는 지난 주일 저녁에 농어촌전도대 파송예배를 드리고 금년도 농어촌 전도활동에 들어갔다.

전도위원회(위원장 강은원 장로)에서 주관하고 지원하여 실시되는 농어촌전도활동은 오는 7월 22일(월)부터 8월 17일(금)까지 각 지원 교회 및 특수 교회에서 실시된다.

농어촌 전도 활동은 우리교회 초창기부터 해왔는데, 최근에는 우리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미자립 농어촌 교회와 특수 교회들을 중심으로 전도활동을 펴서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금년에는 각 교구에서 지원하는 교회에 교구에서 구성한 팀과 대학부와 청년1부의 전도팀을 파송한다.

주요 활동은 전도활동으로 낮에는 축조전도, 밤에는 부흥집회를 실시하여 낮 동안 전도한 사람을 저녁에 초대하여 부흥집회에 참석하게 한다. 흔히 많이 하게 되는 여름 성경학교나 주교 보조활동도 전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대학부와 청년1부에서는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은 낙도와 내륙 오지에서 축조전도를 실시해 오고 있어 전도활동과 전도훈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금년도 대학부와 청년1부는 낙도나 내륙 오지에 전도팀을 보낼 계획이다. 이처

럼 대학부와 청년1부의 전도대 파송 및 지원 등은 앞으로 우리교회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이 봉사, 전도활동 등을 실제적으로 감당해 보는 훈련의 장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거의 모든 도시 교회가 여름 한철 농어촌전도대를 파송하는 일들이 계속됨에 따라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농어촌 지역에서 거론되고 있음을 감안하면서, 이제는 농어촌과 좋은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한 농어촌전도의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때도 되었다. 이런 면에서 대학부가 전남 고흥 지방의 동일한 지역의 낙도를 매년 방문, 전도하는 일 등은 여러 모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금년도 농어촌지역 전도대 파송현황은 옆의 표와 같다.

(사진은 지난 7월 14일 주일 저녁의 96 농어촌전도대 파송예배 모습)



구분	파송처	지도	대장	대원	기간
1교구	충남 논산 서머나교회	성봉환 목사	김신국 집사	10명	8.14-16
3교구	강원 영월 북쌍교회	김찬곤 목사	최남하 집사	10명	8.5-8
6교구	경북 김천 은림교회	한근수 목사	조금복 집사	10명	8.12-14
9교구	강원 춘천 전원교회	조윤재 목사	이만기 집사	10명	8.19-22
10교구	강원 정선 용산교회	정광욱 목사	이철호 집사	10명	7.22-24
10교구	경기 양평 양동침실교회	윤삼중 목사	김시주 집사	10명	8.5-8
11교구	경기 광주 귀여리교회	김희수 목사	김단용 집사	10명	8.12-14
청년1부	전남 고흥 연흥교회	김동석 목사	이명종 집사	10명	7.29-8.2
	전남 고흥 득량교회		김인철 집사	10명	8.12-15
	전남 고흥 금당중앙교회		정태두 집사	10명	8.12-15
	강원 춘천 동면 상절리		문영규 집사	10명	8.5-8
	강원 춘천 동면 감정리		이찬욱 집사	10명	8.5-8
대학부	강원 춘천 동면 만천리	장봉생 목사	이형수 집사	10명	8.5-8
	전북 남원 성은교회		김사무엘	40명	7.15-18
	경기 가평 혜심원		김봉환	20명	7.23-26
	충남 서산 해성교회		이종관	20명	7.24-26
	부산 남부민 중앙교회		김원국	40명	7.29-8.2
	전남 고흥 연흥교회 외 7개성		최요셉	50명	7.29-8.2
	전남 신안 섬리교회		조남연	20명	7.29-8.2
	전북 남원 성은교회		김지웅	20명	7.29-8.2
	경기 포천 포을림교회		박세용	15명	7.29-31
	강원 춘천 소년원		김혜영	10명	8.5-9
	충북 증원 가금교회		박정남	30명	8.12-14
	충북 음성 새생명교회		남화정	20명	8.15-17
선교위	강원 인제 서현교회	한근수 목사	김영록 집사	62명	7.22-24

해외단기선교팀 파송

오늘 찬양예배는 파송예배로 드려

교회는 지난 주 농어촌전도대 파송예배를 드린 데 이어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해외단기선교팀 파송예배를 드림으로 복음 전파 활동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금년도 해외 단기 선교 활동은 선교위원회(위원장 노광현 장로)에서 주관하고 지원하여 인도네시아 등 6개국에서 7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실시된다.

1993년도에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서만수 선교사 시무)에서 여름여린이성경학교를 도와주고, 또한 한일청소년자도자회로 일본을 다녀오면서부터 해외로의 선교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교개념이 국가에서 종족으로 바뀌면서 12,000여명에 달하는 파전도 종족에 대한 관심과 이들을 위한 교회가 한 종족씩 입양하여 전도하자는 운동이 퍼져나가면서 여름철 해외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들과 접촉하여 그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관심 있는 교회에서는 교회적으로 이를 적극 지원하여 대학·청년부 회원들을 단기 선교 사역으로 파송

하고 있다. 또한 교회 밖의 각 선교단체에서 모집하여 실시하는 해외 단기 선교 사역에도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우리 교회는 1993년에 인도네시아에 이어 94년도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95년에는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등을 다녀왔다. 이는 실제 선교 현장에서 선교대상자들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 이상의 교육과 훈련이 없다는 것을 다녀온 사람들은 누구나 느끼는 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선교현장을 한번 다녀온 사람이라면 평생을 선교적 관심 속에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와 선교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따른 선교지 후원, 지원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 진정한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의미가 살아날 것이다.

금년도 해외단기선교 파송 현황은 아래와 같다.

파송국	지도	단장	대원	기간
인도네시아	김찬곤 목사	박상준 장로	14명	7.22-30
일본	정광욱 목사	김인철 집사	13명	7.31-8.7
홍콩	김희수 목사	강철형 집사	20명	8.5-12
태국	김동석 목사		12명	8.14-22
대만	이홍성 목사	송환장 장로	17명	8.19-27
이스라엘	장봉생 목사		11명	8.21-29

제4차 학습 및 세례식

8월 2일(금) 갈릴리움에서

교회는 금년 들어 네번째로 실시하는 학습 및 세례식을 오는 8월 2일(금) 오후 7시에 갈릴리움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학습·세례·유아세례·개종 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7월 28일(주일)까지 교구 담당 구역자에게 신청하여 절차를 밟도록 기다리고 있다.

신청한 사람은 8월 1일(목) 오후 7시, 교육관 307호에서 실시하는 예비교육과 문답을 마쳐야 된다.

금요집회, 구역예배 쉬기로

7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교회는 하절기를 맞아 교회내 각종 여름 행사와 계절학교 등으로 많은 성도들이 교사로, 학생으로 봉사하며 참여하게 됨에 따라 7월 26일(금)부

터 여름행사가 끝나는 8월 30일(금)까지 6주간 구역예배 및 금요집회를 쉬기로 했다.

그러나 매 주일 모이는 교구 모임과 기도원의 집회는 지속하며 구역예배가 쉬는 동안은 구역장들이 자체 심방을 하기로 했다.

조동원 목사 뉴질랜드 협력선교사로

교회는 제8교구, 초동6부, 안수집사회, 출판부 지도를 맡아 사역하던 조동원 목사를 뉴질랜드 협력선교사로 파송한다. 조

목사는 앞으로 뉴질랜드총현교회(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에서 시무하게 된다.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영광의 왕의 입성

(시편 24:1-10)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에 망명을 가 있을 때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모두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땅에 있어야 할지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지파를 다스렸습니다. 그후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기로 하여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통일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도를 정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는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도중 제사장이 아닌 옷사가 법궤를 만지는 실수를 범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마음은 좋았으나 하나님의 법궤로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되는데 손수레에다 싣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징계를 당한 다윗 왕이 놀라서 하나님의 법궤를 오벧에돔의 집에 놓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석 달을 지난 다음에 오벧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법궤로 법궤를 모시지 못한 잘못을 깨닫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옵니다. 시편 24편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막에 모시게 될 때에 지은 시입니다.

1. 예루살렘의 참 왕은 누구십니까(24:1,2)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를 씁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께의 것이요" 예루살렘뿐 아니라 지구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짐승, 새, 물고기, 나무, 바위 등 천부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즉 지구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지하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것이요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대를 바다 위에 세우심에 땅을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이 바다 위에 기초들을 놓고 지구를 세워 주셨습니다. 바다 위에 기초들을 놓을 수 있는 인간이 없는데 하나님은 바다 위에 기초들을 놓으시고 사람과 짐승이 사는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2.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사람이 누구입니까(24:4)

(1)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모든 일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놓고 얻어먹는 게으름뱅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에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욕심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의 눈물, 남의 피물은 돈을 주머니에 넣지 않습니다.

(2)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섞인 것이 없이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의 마음은 깨끗해야 하는데, 자기의 욕제나, 자식,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깨끗하다고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섞이지 않은 겸손한 마음, 욕심이 섞이지 않은 청결한 마음, 원망이 섞이지 않은 감사하는 마음, 외식이 섞이지 않은 정직한 마음, 방종이 섞이지 않고 조심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모든 잘못, 교만하고 욕심에 끌리고 원망하고 외식하고 되는 대로 결사없이 살던 생활을 회개하여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때에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고 그 마음에 성령이 오시어 하나님과 정상적 교제를 가집니다.

(3) 목적을 정한 사람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말은 목적을 정한 것을 말합니다. 뜻을 세웠다, 목적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허탄이란 쉽게 말해 뿌리없음을 의미합니다. 땅 위의 부귀 영화는 다 구름과 같습니다. 즉 뿌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돈,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다 뿌리가 없어서 언제 마를지, 언제 꺼내려갈지, 언제 묻힐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세상 것이 생기면 자랑하고 교만, 경솔, 잔인 등 여러 가지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은 세상의 것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세상의 것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자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악마의 파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나 명예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바람만 불면 다 넘어가 버립니다. 천국이 멀어지면 넘어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신자의 소망은 전쟁이 일어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4)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양심이 깨끗하다는 말로, 고백적으로 남을 속여라고 하는 맹사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앞에는 약속을 지키는 선용이 있고, 하나님 앞에는 믿음을 지키는 선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사람은 손이 깨끗한 사람, 일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때론 손을 회개하고 씻음받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 사랑을 일등으로 정한 사람,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는 사람, 잠깐 있다 없어지는 뿌리없는 것에 마음과 목적이 끌려가지 않는 사람, 거짓맹세 하지 않는 사람, 선용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3.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24:5)

(1)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첫째, 과거에 대한 구원의 복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악의 책임을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둘째, 문제에 대한 해결의 복입니다. 몸의 문제, 사업 문제, 전쟁 문제 등 모든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셋째, 세상 떠날 때는 천국의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는 복을 받습니다.

(2) 의를 얻습니다

의를 얻는다는 말은 첫째, 내가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의를 행하는 의인되는 실력을 키워 줍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 의를 행합니다. 점점 의로워지는 복을 받습니다.

(3) 하나님의 얼굴 빛 안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치는 곳에는 어두움이 없어집니다. 악마가 손을 못둡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삽니다. 영혼이 삽니다. 자라나서 기쁨이 됩니다. 일꾼이 됩니다. 꽃을 피웁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칭찬받는 영광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면 겁과 두려움에 없는 평안한 가운데서 자라나고 열매 맺는 천국생활을 땅 위에서부터 하게 됩니다.

4. 영광의 왕을 영접하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라" 예루살렘의 성문을 지금 열어 놓고,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곳에 파출나가세 다윗이 여섯 갈을 걷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섯 갈을 걷고 또 예배를 드려면서 춤을 추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예루살렘 성문에 열려라.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문을 열어라. 그리고 영광의 왕을 예루살렘에 모시는 것'을

렴 너희 마음 속에 모셔야 되겠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마음 속에 모신 자로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 속에 모시기를 원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의 왕 예수님을 대문 밖에 세워놓고 박대하면 안됩니다. 예수님이 문 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욕심과 교만과 고집 때문에 문을 잠가 놓습니다. 예수님이 안들어오시면 우리 마음 속에는 파리가 들어옵니다. 또 파리가 나가기 싫으니까 문을 잠그라고 자꾸 유혹합니다. 악마의 속삭임에 속아서 마음문을 닫아놓지 말고 속히 열어야 되겠습니다. 마음문 열어놓고 강하고 능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인생길을 가려면 영광의 왕을 모셔야 되고, 일을 잘 하려면 영광의 왕을 모셔야 되고, 악마를 이기고 자유하려면 영광의 왕을 모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을 열면 우리의 대접만 받으시고 우리를 고생시키실 하나님이 아니시고 마음에 천국을 주시고, 가정에 천국을 주시고, 교회에 천국을 주시고, 나라에 천국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모시면 천국이요, 예수님 박대하면 지옥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누구 앞에서든 의인 취급을 받고,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 얼굴 빛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사람은 손이 깨끗한 사람, 일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때론 손을 회개하고 씻음받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 사랑을 일등으로 정한 사람,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는 사람, 잠깐 있다 없어지는 뿌리없는 것에 마음과 목적이 끌려가지 않는 사람, 거짓맹세 하지 않는 사람, 선용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쁜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영접합시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도 다윗 왕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땀 흘리고, 다윗 왕이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교제 방법으로 교제하여, 다윗 왕에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다 받기를 소원합니다.

*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



안식의 열매

최영찬

(목사, 중동2부 지도, 교육연구소 부지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일에서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리랜드 라이콘이란 사람은 《일과 여가》란 책에서 오늘날 일이 직면한 위기를 세 가지로 요약해 주고 있다. 그는 현대인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사람의 경우 일반 근로자가 주당 51시간 일하고, 도시 근로자는 55시간 일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1/3 이상이 과외로 추가 근로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작 일을 위해 준비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까지 합하면 이 시간은 더욱 증가한다.

더욱이 미국 사람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근로 시간은 훨씬 더 많다. 우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민족으로 유명하다. 우리는 식사하고 자는 시간을 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로 보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전문직이나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60%가, 그리고 비숙련공의 경우에는 90%가 자기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고용되지 못하거나 실직으로 인하여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현대인을 위기에 이르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한 채 생산 라인에 선 로봇같이 지루하고 무의미한 일들을 매일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일 중독증 환자’란 말까지 생기게 되었다.

현대인들은 충분한 영혼과 육체의 휴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여가 시간조차도 희생시키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여가 시간을 갖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기까지 한다. 크리스천들의 경우에도 일에서 잠시 떠나 휴식하는 일을 죄처럼 생각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여가 시간을 보내는 내용 자체도 질적으로 매우 퇴보하고 있다. 폴 엘렌이라는 사람은 한 사회의 문화적인 타락의 정도를 알아보려면, 그들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현대인들이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권태롭고 주의 산만한 일들과, 주색, 폭력, 그리고 공포를 즐기는 일들로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여가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가를 강조하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여가로 보낸다. 그들은 골프에, TV에, 그리고 주색에 빠져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도 여가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일에 중독되어 여가를 갖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하는 시간보다 여가 시간을 지나치게 많이 갖는 것도 역시 옳지 않은 것이다.

성경은 일과 여가 생활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일과 안식을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가르쳐 준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 세상을 관리할 책임을 주셨다. 그러나 성경은 일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할 시간도 주셨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일과 안식을 잘 조화시키며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일 동안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동시에 쉬는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지시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분명히 해 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의 계명을 십계명에 포함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산 라인에 있는 로봇과 같이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는 삶을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마치 생산 라인에 있는 로봇같이 일에 중독되어 있는 것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더 중요한 의와 신의는 버리고, 눈에 보이는 십일조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만 매달려 있던 것과 같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이 안식을 지킴으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일에서 떠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일하는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우리가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므로 안식은 일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과, 그 일을 하는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날인 것이다.

모세오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년에 세 번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지시하셨다. 보통 이 절기들은 일주일씩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걸어서 시골에서 예루살

렘으로 올라와야 하는 시간까지를 계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2-3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 특히 초막 절기 앞에는 대속죄일 행사가 있어서, 이 달에는 거의 한 달 내내 축제가 계속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년에 거의 석 달을 일에서 떠날 것을 지시하신 셈이 된다. 그리고 매 주일에 하루 있는 안식을 쉬면 일년에 거의 두 달을 쉬는 셈이 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년에 약 5개월의 시간을 일에서 떠나도록 지시를 받은 셈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율법은 매 칠년마다 일년을 쉬고, 오십년마다 일년씩 쉬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놀기만 하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같이 쉬는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훨씬 적은 영토와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보다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일만 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식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을 하게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바로 이 안식의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 없는 육신의 안식만을 구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로 안식은 호색과 타락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영혼이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로 끝나게 되기도 한다.

우리 나라 직장인들은 7, 8월에 대부분 여름 휴가들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휴가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먼저 우리는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란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잠시 일에서 떠나서 휴식하면서 일보다 그 일을 주신 하나님과 그 일을 하는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또 이웃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근본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안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이 되게 해야 한다. 만일 우리의 안식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안식은 원래 목적에서 이탈되어, 죄를 짓고,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름 휴가를 통하여 참 안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계획해야 한다.

우리는 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음악이나 미술, 독서 등과 같은 문화적인 활동이나, 스포츠나 휴가 여행 같은 레크리에이션, 영화나 오디오 감상, 취미나 공작 활동, 그리고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야 한다. 그리고 성숙한 기독교인들이라면 휴가 기간에 성경학교에 교사로서 참여하는 일이나, 가난한 곳이나 시골을 다니면서 무료 진료를 해 주는 일, 다양한 사회 봉사 활동, 그리고 전도나 선교 여행을 통해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휴가 기간에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단순히 쉬는 것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또 다른 기쁨과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서도 우리의 열매를 원하시지만, 안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휴가가 하나님께 열납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계획해야 한다.

성숙한 영혼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브리엘찬양대

가브리엘찬양대(대장 김천채 장로)가 변하고 있다.

예배에 있어 찬양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자신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난 6개월간 대원 개개인의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되는 여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해 왔다.

먼저 말씀과 기도 중심의 생활을 위하여 주일 새벽 6시 찬양 연습 전에 성경 윤독회를 갖고, 중보기도의 생활화를 위하여 기도책을 만들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시간을 정해 기도하며 신앙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였다. 이는 130여명의 대원들로 하여금 주일 1부예배의 찬양을 위하여 누구보다 일찍 교회에 나와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꺼이 교회당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사명감을 갖게 하는 신앙의 사람들로 성장시켰다.

또한 연초부터 성경읽기와 쓰기,

암송 등을 강조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활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여 왔다. 이를 통해서 대원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는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을 체험한 대원도 있고, 자신들이 쓴 성경 필사본을 신앙의 가보로 물려주려는 대원들도 있다. 뿐만 아니라 경건 훈련의 일환으로 특강을 계획하여 얼마 전 김천채 장로를 강사로 모시고 특강을 실시했는데, ‘좋은 찬양대가 되기 위한 경험 열 가지’는 대원 자신들의 자세를 돌아보는 좋은 잣대가 되었다.

가브리엘찬양대는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건 훈련을 해나갈 것이라고 한다.

토막소식

▶ 중등2부는 오는 7월 24일(수)부터 26일(금)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반석 위에 집을 짓자' 이고 강사는 최영찬 목사이다. 중등2부에서는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신약성경의 산책'이라는 교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신약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성경에 관심을 심어 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 제9·2교구의 강효길, 이복련 집사가 농어촌 전도 활동에 써 달라며 공책 5천권을 기증하였다.

▶ 찬양위원회에서는 장례예식용 찬송가를 모아 카세트테이프 '찬양대별 장례 찬송 모음집'을 제작하였는데, 테이프 보급소에 가면 구입할 수 있다.

▶ 지난 7월 11일 연주회를 가진 남성중창단에서는 그간에 연주한 찬양곡들을 모아 CD음반을 제작, 현재 테이프 보급소에서 판매하고 있다.

선교지에 보낼 물품을 수집합니다

선교위원회에서는 해외단기선교팀(인도네시아, 태국, 홍콩, 터키, 일본, 이스라엘) 편으로 보낼 물품을 수집합니다.

• 수집품목:

여름성경학교에 사용하고 남은 물품 중 ① 문구류, ② 완구류, ③ 생필품, ④ 의류, ⑤ 기타

• 수집기간:

7월 21일(오늘)까지

• 수집장소:

사무국, 선교위원회(선교관 406호)

• 문의:

☎ 552-8200 교환 356~358

하루가 천 날 같고 천 날이 하루 같다는 말이 어울릴까. 당시 우리가 흘러 들었던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회를 하자"라는 김윤경 집사님(남성중창단 지도)의 말씀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셨던 선교 특명이었나 보다.

연주회를 위해 연습해 왔던 지난 몇 개월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연습마다의 하루하루는 무척이나 오랜 시간 속을 헤집는 듯했다. 그 동안의 주일 저녁 찬양예배시 드려 왔던 찬양곡들을 모아 가볍게 발표회를 하려 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안고, 너무나 많은 기대와 기도 속에서 그 규모는 점점 커져 갔다. 장소는 교회 안이 아닌 서울교 육문화회관에서 하게 되었고, 신문, 라디오, CATV 등의 대외적 홍보와 더불어, 외부 협찬과 후원, 그리고 기획 속에서 이 연주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배경을 이끌 만한 충분한 요건을 갖추질 못했다. 대부분의 단원이 비전공자인데다가 아직 아마추어적인 발성을 가진 단원이 많았으며, 저마다 각자의 생활이 있어서, 시간적 교집합을 갖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음악적으로 뛰어나지 못했지만 우리는 연주회를 은혜 중에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는다.

이번 연주회는 많은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연주회였으며, 또한

※ 중헌남성중창단 연주회를 마치고 ※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전 이 배

(남성중창단 총무)



은혜와 감사의 연주회였다.

특히 이번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김 집사님을 비롯한 단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눈이 시리도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허물 많고 몹쓸 죄인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평화와 은혜의 도구로 써 주신 당신의 사랑은, 아마 우리 단원 모두 평생의 간증거리가 될 것이다. 또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보태 주신 많은 손길이 있었기에 이번 연주회가 더 은혜로웠다. 즉 이번 연주회는 사랑의 연주회였다.

또한 은혜의 연주회였다. 학교 오페라 연주, 회사 출장, 군 복무 중 출동 상황, 기말시험 등 연습을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다가, 공연 10여일 전에는 CD제작을 위해 주야가 뒤바뀌어

녹음을 하던 중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단원은 임파선염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었다. 당시는 걱정되고 불

안하여 연주회가 무산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것들은 다 인간적인 상황이었었고, 근시안적인 인간들의 부질없는 걱정이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조건과 현실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이끄시고 도구로 써 주셨으며 그 만큼의 은혜 속에서 은혜의 연주회는 막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연주회는 감사의 연주회였다. 먼저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의 식성을 감당(?)케 하시고, 연주회 기간 동안 중창단 내부적으로 실력이 배가되게 하시며, 동시에 서로간의 교제를 통해 더욱 하나가 되었음을 감사드린다. 또한 어머니처럼 우리를 챙기시고, 우리가 편안히 연주할 수 있도록 앞뒤에서 이끌어 주신 대장 차신득 장로님과 김윤경 집사님의 헌신에 감사하고, 특히 기도로써 후원해 주신 찬양위원회 장로님,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에게 감사하고, 물질과 기도로 협찬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차량으로, 안내와 봉사로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이 큰 일을 이루시고 직접 감독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충현복지관 제2회 재할 캠프 실시하고

충현복지관에서는 7월 10일(수)부터 12일(금)까지 2박 3일 동안 제2회 충현 재할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재할 캠프는 여형 캠프의 목적을 가지고 강원도 오대산과 소금강 일대 및 통일전망대와 설악산 권금성을 돌아보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첫날 오전 8시에 복지관에 모여 예배를 드린 후 서울을 출발하여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오대산 국립공원에 있는 상원사에 도착하였다. 7월의 눈부신 햇살을 머금은 나뭇잎들이 찬란한 초록빛을 발하고 있는 숲속에서 점심 도시락을 먹으며 여유롭게 상원사를 돌아보고, 소금강 상류에 위치한 구룡폭포를 향해 출발했다. 구룡폭포까지 올라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지만 훈련생들 대부분이 포기하지 않고 구룡폭포까지 올라가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를 볼 수 있었다.

푸르른 하늘과 맞닿은 절벽 아래로 하얗게 부서지는 폭포를 바라보고 있자니 마치 우리 모두가 신선이 된 듯한 기분마저 느낄 수 있었다. 아쉬운 마음으로 구룡폭포를 내려와 숙소인 소금강 기도의 집으로 향했다.

둘째날 아침에는 통일전망대에 올라가 금강산에 관한 비디오도 관람하고, 지역적으로는 가깝지만 갈 수 없는 북녘

땅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기도 하였다. 훈련생들과 교사들 모두가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매료되어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이었다.

오후에는 설악산 권금성에 올라가 또다시 드넓게 펼쳐진 대 자연을 만끽했다. 권금성 케이블카에서 내려 권금성 정상까지 매우 가파르고 위험한 바위 절벽이었지만 훈련생들 모두가 열심히 올라갔다. 그 속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매우 더디고 매우 불안정한 자세들이었지만 모두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 푸르른 하늘을 좀더 가까운 곳에서 호흡할 수 있었다.

마지막날 저녁에는 캠프파이어 시간을 통해 짧지만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진 이번 캠프 일정을 정리하며 서로에 대한 정을 나누었다. 밤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은 불꽃 아래 사랑의 인사말을 건네

면서 깊어가는 캠프의 마지막 밤을 아쉬워했다.

마지막날에는 경포대 해수욕장에 들려 바닷물에 발을 담그기도 하고 모래성을 쌓기도 하면서 모처럼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정겨운 시간을 가졌다. 경포대 해수욕장을 나와 근처에 있는 옛 선인들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선교장에 들려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았다.

선교장을 뒤로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마음에 아쉬움이 가득했지만 그만큼 많은 추억들을 간직할 수 있었다.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들이었다.

이번 캠프를 통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자연의 향기를 마음껏 느끼며 서로의 소중함을 확인하고,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번 캠프는 쉽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작은 사고 하나 없이 무사히 잘 끝내고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이를 위해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셨다. 이랜드 그룹 한세복지재단에서는 훈련생들과 교사들에게 단체 티셔츠를 제공해 주

었고, 한양대학교 사회봉사단에서는 2박 3일 동안 무료로 대형 버스 2대를 제공해 주어 우리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캠프를 다녀올 수 있었다. 또한 코오롱스포츠에서 단체 체육복을 제공해 주어 복지관에서 매일 아침 체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캠프 동안에도 아주 유용하게 잘 이용했다. 캠프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충현복지관 특수교사 모집

충현복지관에서는 정신지체, 자폐아동들을 지도할 특수교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자격: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예정자), 특수교육 경험자 우대

• 제출서류:

자필이력서(사진 포함), 최종학 교성적증명서, 자필소개서 각 1통

• 접수마감:

8월 11일까지(마감일자 우편소인 유효)

• 문의:

☎ 564-4885, 562-0548

